

1. 연구소 동정

■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규 연구진 합류

인문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박건 박사를 영입하였다. 박건 박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박건 전임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하대 의과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커뮤니티케어 분야 이외에도 먹거리, 젠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향후 박건 박사는 특히 사회적경제, 공동체 영역에 집중하며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반을 연구할 계획이다.

■ 2023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전 시행 예정

우리 연구소는 2023년 상반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전”을 시행 예정으로, “통합돌봄 관련 사례”, “학술연구 논문”의 두 분야를 공모한다. 사례공모 분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단체에서의 주거, 건강의료,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우수한 현장 사례를 발굴한다. 연구논문 분야에서는 관련 사례/이론/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사례 발굴과 관련 연구를 통해 관심 확대 및 정책마련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자세한 내용은 1월 이후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2. 연구 활동

■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2단계 과제 본격 추진

지난 10월 26일, 2단계 과제수행을 위한 전체 연구진회의를 진행하였다. 2단계 과제에서는 “통합돌봄 실천현장: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당사자 인식과 경험”, “통합돌봄 관련 시민사회역량: 사회적경제조직과 주민조직 활용”, “통합돌봄서비스 지역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연차별 내용과 자료”, “사례공모전 및 논문경진대회”를 수행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해 연구진의 역할과 연구 진행방법을 논의하였다.

전체 회의 이후, 사회적경제조직 연구팀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11월 28일, 12월 5일 등에 걸쳐 사회적경제 연구를 위한 주요 지점들을 살펴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 서울지역 2개(은평구, 노원구), 부산지역 1개(우리마을) 사례연구 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 통합돌봄팀, 부산 방문하여 전체 회의 진행

서울팀 연구진은 부산을 방문하여 전체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서울팀과 부산팀의 연구 주제, 방향, 전략을 공유 및 논의를 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과 서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과정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부산지역 통합돌봄관련 사회적 경제의 역할 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부산지역 중고령층 거주지역 선호도 논문 구상 등을 논의하였다. 논의한 주제는 “중고령층의 정주의사가 지역사회의 노인정책수요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60~70대 정주의사에 있어서 삶의 질의 매개효과”이다. 이와 함께 GIS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 은평구 통합돌봄SOS센터 포커싱 그룹 인터뷰 진행 완료

우리 연구소는 지난 11월 말 ~ 12월 중순까지 서울시 은평구 돌봄종사자들 대상 포커싱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15명으로, 돌봄매니저(사회복지직, 간호직), 찾동 방문간호사, 방문복지사가 참여하였다. 조사내용은 “제공자 측면에서의 좋은 돌봄이란?”, “돌봄서비스 기본 원칙에 대한 인식과 평가”, “직종 간 협력의 긍정적 요인과 장애요인”, “동돌봄SOS센터의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 “이용자와 제공자 간 서비스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 등 이다. 이후 녹취문 정리 및 내용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3. 학술논문 및 기고

- 이태헌, 문경주, 김일호, 2022,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행을 위한 연계형성의 지역 간 비교 연구, 지방정부연구 26(3).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실행은 돌봄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직 간의 연계를 수요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해 온 지방 대도시의 B구와 J구를 대상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여 연계형성의 분야별 차이와 정책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B구와 J구는 행정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2년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기간 동안 B구와 J구에 형성된 주요 기관 간의 협력체계와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네트워크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상지역은 공통적으로 행정 중심인 구청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분야별로 합산한 결과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둘째, 두 개 구가 공통적으로 보건 의료기관의 중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사회복지기관의 연계가 약하게 나타났다. 셋째, B구의 연결중심성 총량(701.6)이 J구(487.6)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조사표를 토대로 실시된 두 개 지역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네트워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네트워크 형성 정책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4. 콜로키움 알림(2023.01~2023.03)

- 제37차 콜로키움/ 2023.01/ 통합돌봄 현장에 관한 이해(부산지역 중심)
- 제38차 콜로키움/ 2023.02/ GIS 활용방법(1차)
- 제39차 콜로키움/ 2023.03/ GIS 활용방법(2차)

5. 연구소 알림

■ “한국중년의 현황과 전망” 과제 마무리

김정석 연구소장은 동국대학교의 ‘한국중년의 현황과 전망’ 과제를 종료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한국 중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다학제적 성격을 확인하고 통섭학문으로서 중년학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사회의 중년이슈에 관한 해결방안 및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